

## 브라질 문화에 나타난 아프리카 흑인 문화\*

김 영 철\*\*

### I. 들어가면서

브라질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국가이다. 그래서 인종적인 면에서는 인종의 도가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복합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라질의 복합문화는 브라질 인디오들의 문화, 발견이후 유입된 유럽의 문화, 식민기에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 문화, 그리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아시아 이민을 통해 유입된 아시아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랍문화가 유입되어 식문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유입은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특성처럼 브라질 문화라는 전체를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개개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들을 포함하고 있는 브라질을 혼혈인종과 혼혈문화로 특징 짓는다. 문화는 “어느 특정 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 신념, 태도, 그리고 특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의 모든 구조, 의식(儀式), 몸짓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의된 예술형태까지 포함한다(Richard Hoggart). 따라서 문화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며, 사회적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 99 - 보호학문)”

\*\*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강사

내는 전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을 문화라고 한다.(전경수, 1994).

브라질 역사와 정체성 연구를 처음 시도한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는 1888년 “브라질 문학사(A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에서 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 인디오보다 브라질 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바 있다. 이후 이루어진 브라질 역사와 정체성 연구에서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유럽 문화적 토대에 아프리카 흑인문화가 어떻게 유입되었고, 브라질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아프리카 흑인문화는 브라질의 전통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은 브라질 현대 문화내에 아프리카 흑인 문화가 여전히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게 한다. 아프리카 흑인 문화는 유럽인들이 식민을 시작한 이후 유입되었다. 사탕수수 농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 아프리카적인 특성을 지닌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문화의 적응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아프리카 문화의 적응성은 19세기 브라질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1930년대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의 “주인과 노예 (Casa Grande e Senzala)”라는 저서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그의 저서에서 저택(Casa Grande)에 거주하는 백인의 유럽적인 문화와 바깥채(Senzala-우리식 표현임)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의 브라질 사회를 1500년 이후 계속된 식민문화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평가는 프레이리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옥따비우 이아니(Octavio Ianni)는 브라질 사회의 변화 시기를 1500년 브라질의 발견, 1822년 브라질의 독립과 1889년 공화정의 시작으로 구분하고 있다. 브라질의 사회, 문화적인 독립 혹은 독자성을 1889년 공화정이 수립된 이후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문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프리카적 요소가 브라질 문화를 표현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 II. 브라질 문화와 정체성

### 1. 1920-30년대 브라질 정체성 연구

대부분의 브라질 인종학자들은 브라질 역사와 문화에서 흑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제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를 들 수 있다. 그는 1888년 브라질 국민의 특성을 밝히고 있는 “브라질 문학사(A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에서 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인디오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브라질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흑인을 비롯한 혼혈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백인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메루와 같은 주장을 폄하는 학자로는 조아킹 나부꾸(Joaquim Nabuco), 아프라니우 뼈이소뚜(Afrânio Peixoto), 주앙 빠띠스따 라세르다(João Batista Lacerda)를 들 수 있다.

브라질 정체성 확립에서 가장 큰 전화점은 1920-30년대 브라질에서 나타났던 문화 운동과 1930년 혁명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노력은 1922년 일명 “현대예술주간(Semana de Arte Moderna)”을 탄생시켰다. 현대예술주간 행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브라질 문화는 인위적,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모방적인 특성을 보인다. 독립 이후 브라질 문화에 대한 분석은 낭만주의, 자연주의, 현대주의, 우익과 좌익, 전체주의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문화에 대한 논의는 많은 의문점을 남겨두고 있다.

1922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상파울루 시립극장에서 거행된 현대예술주간 행사는 분명 새로운 예술운동을 위한 작가와 기타 예술가들의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최초의 시위였다. 1822년 브라질이 정치적 독립을 생취한 이후 브라질과 브라질 국민들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두 개의 시

기로 구분할 경우 브라질의 현대역사가 시작되는 경계선으로 설정되어 질 수 있는 브라질 역사에 있어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즉 이 행사와 함께 브라질의 역사는 저발전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짧은 시간에 선진 유럽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대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게 되었다(이광윤 박원복, p.186).

당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로는 젤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를 들 수 있다. 그는 브라질 흑인과 인종혼합의 문제를 다루면서 문화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브라질 정체성 문제를 브라질의 국민성, 인종, 그리고 문화 문제와 연결시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작품인 주인과 노예는 브라질 역사와 브라질 전체 현실에 대한 해석이었다. [주인과 노예]에서 제1공화정 시대의 주인공이 자기의 뿌리와 정체성을 과거 식민시대와 19세기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개했는데, [주인과 노예]의 부재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떻게 브라질 가족 모델 형성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문화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북동부지역의 음식, 언어, 의상, 사랑의 표현 및 성행위 그리고 종교 등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인종에 대한 문제에 있어 인종적 민족주의를 주장했다는 것과 [주인과 노예] 발표 후에도 다른 작품들 속에서 꾸준히 브라질 역사의 연속성을 '연대기적 시간개념'과 함께 '사회적 시간개념'으로 발전시켰다는 점. 시간개념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통시적인 시간개념으로 브라질 인종이라는 시간개념으로 정의했다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그의 견해는 인종이나 인간의 지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종결정론이나,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리결정론에 반대하며,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역사결정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문화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지방의

문화는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그것들이 각각 어떤 역사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변천해왔는가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적 특수주의하고도 한다. (최금좌, p.268)

낭만주의 시대의 브라질의 모더니스트들이 자국의 언어와 자국에게 합당한 문화적 패턴에 근거하여 자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은, 첫째 해독은 유럽 지향적인 과거 패턴과의 단절, 둘째, 자국 사회의 다양한 민족적 구성에 대한 이해, 셋째, 풍부한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유산에 대한 통찰, 그리고 넷째, 자국 원주민 인디오들의 야만적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종주국의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교화의 대상이기도 했던, 원주민 인디오들의 식인풍습 (Antropofagismo) 이었다.

브라질 모더니즘 작가들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은 오스바우 지 안드라지 (Oswald de Andrade)가 자신의 ‘식인주의 문학론(Antropofagismo)’을 언급한 것을 분석해보면 낭만주의의 유토피아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빈부차이가 극명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인종, 풍요로운 자연, 천연자원, 음식, 춤 등)을 詩(시)라는 백지 공간에 투사하여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브라질적 언어로 구성된 시의 역동적 구조 속에서 서로 동화하고 융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즉, 그러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identity)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박원복, 1998).

## 2. 1950년대 이후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체성 연구

1950년대 브라질 문화론은 사회과학의 현대화를 통해 지적으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학과 인류학 연구의 토대는 1920년대 모더니즘이 출현하면서 이루어졌지만 1950년대 이 분야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1940년대에 다르시 히베이루(Darcy Ribeiro)가 1940년대 브

라질 인류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브라질 발전의 문제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브라질인은 인디오,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의 혼혈로 형성된 새로운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문화 역사적인 결합(Configurações histrico-cultural)이라는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온정주의적인 수탈(Exploração Patronal)과 식민지 약탈(Expoliação)의 의미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 공부한 호베르투 다 마따(Roberto da Matta)는 1978년 “Carnavais, Malandros e Heróis”를 통해 구조적인 관계에서 브라질 사회의 특성을 찾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라질인들의 가치는 아메리카 노예 식민기부터 시작된 포르투갈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브라질 인종의 동질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식민역사를 인정하지만, 이 보다는 교회와 포르투갈 왕정의 비동등성(Antiigualidade)과 반개인주의(Antiindividualismo)의 사회구조와 가치체계를 더 강조한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지배집단으로서 백인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계층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흑인, 인디오와 몰라토를 격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명과 아메리카인(As Américas e a Civilização)에서 불균형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아메리카의 500년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그는 아메리카인들을 “이식된 국민(Povo transplantado)”, “참고인(Povo Testemunho)”, “새로운 국민(Povo Novo)”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 흑인의 특성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유럽인들도 유럽에 거주하는 유럽인들과는 구별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디오들도 식민이전의 인디오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문화이지만 그 문화 속에는 각 인종들이 지니고 있던 원류문화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원류문화와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

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브라질 정체성 논의에서 아프리카 흑인의 위상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에두아르두 뽀라두(Eduardo Prado)는 브라질 문화적인 정체성 형성에서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까보글루(Cabocl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뽀라두는 브라질의 혼혈의 역사에서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만을 인정하고 있다. 1900년 당시 브라질의 순수 인디오 인구가 적었던 이유를 이러한 혼혈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뽀라두는 브라질 역사에서 흑인 혹은 아프리카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Skidmore, Thomas, 1994).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말 브라질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브라질 문화가 유럽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으로 퇴보(Backwardness)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퇴보의 원인으로 혼혈(Mestiço)을 지적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영향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브라질 문화형성에서 아프리카 흑인의 영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브라질 문화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브라질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인정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에 의해 이루어졌다. 프레이리는 브라질 역사과정에 이루어진 인종적인 혼혈이 다른 나라와 브라질을 구분지어 주는 특성이지, 문화적 퇴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Hermano Vianna, 1999). 또한 릴리아 수아레스(Llia Schwarez)는 전세계에서 브라질이 가장 많은 혼혈이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의 아프리카 흑인들의 문화는 미국의 흑인문화와 구분되며 아프리카 브라질(Afro-Brasileiro)의 정체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히 브라질의 바이아주에 아프리카와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복합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Kraay, 1998). 예를 들어 많은 브라질인들이 흑인과 백인

의 중간적인 범주(Intermediate Categories)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변해가고 있다. 크레이(Kraay)는 1970년대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인 깡동브레(Candomblé)의 역할과 아프리카 브라질인들의 정치적 동원화 과정을 통해 브라질의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혼재 경향 분석에서 브라질의 흑인들의 정치과정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베리크만(Barickman)은 바이아 주에 위치한 헤꽁까부(Recôncavo)에 관한 연구에서 농업과 노예에 대해 흥미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889년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바이아 주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은 바이아 주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버들러(Butler)는 노예제 폐지 이후 상파울루(São Paulo)시의 도시 아프리카 브라질인들의 정치생활 경험과 문화적 생존을 대비시킨 연구를 추진시키며, 상파울루의 아프리카 브라질인들은 다수의 정치 집단, 흑인들의 압력, 흑인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주류사회에 필적하는 하나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III. 아프리카 흑인문화의 적응과정

#### 1. 식민기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유입

1500년대초 네덜란드는 기니아 해안의 포르투갈 세력을 침식하기 시작하여 1637년에 엘리미나(Elimina)의 전략적 요충을 장악하여 그 지배권을 확립한 이후 브라질 해안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꾸라꾸우(Curacuo)와 세인 오스티우스(Sain Eustatius)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노예를 밀수하게 되었다. 유럽 중상주의 국가들은 노예들

의 경제 이용, 가격문제 및 유럽자체의 인구문제 등을 생각할 때 황금과 더불어 노예수입이 아프리카 무역에서 주요한 품목이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반세기 전인 1441년에 포르투갈의 안땅 곤살베스(Antam Gonçalvez)가 지휘하는 배가 보하돌갑의 서쪽에서 흑인 노예 1명과 무어의 귀족 출신 1명을 생포하였고 무어인 귀족은 자기를 해방시켜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면 보답으로 5-6명의 검은 무어인을 주겠다고 곤살베스에게 간청하였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 곤살베스는 남녀 10명의 흑인들을 리스본으로 이송했다.

대서양무역 전반기인 1440년대에서 대략 1500년까지의 아프리카 노예의 소비시장은 자연히 유럽전체가 되었다. 포르투갈은 1450년에서 1505년간 104,000명에 가까운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을 주로 유럽시장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의 발렌시아항의 경우 1489년에서 1516년 수입된 노예의 약 2/3가 아프리카인이고 연평균 약 250명이 매년 수입되었다. 1551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인구 10만명 중에 약 1/10에 상당하는 9,950명의 노예가 리스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573년까지 포르투갈에 4만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하며 그들 중에 대다수가 사하라 이남 출신이었고 1506년까지 기니아 해안에서 포르투갈로 선적된 노예수는 3500명으로 추정된다.

노예들은 신세계에서 농업경작에 이용되기 전에 유럽에서 노예노동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노예노동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초기의 흑인노예 노동은 가내노동과 집단노동을 통한 도시나 농촌의 작업장에서 이용되었다.

이베리아반도의 노예증가는 해안의 사탕 플랜테이션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서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와 관계를 맺게 되는 사탕 플랜테이션은 이미 남대서양 제도의 일부에 나타나는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을 닮고 있었으며 1449년에는 대서양에 있는 마데이라(Medeira)섬과 카나리 제도에서 유럽으로 사탕을 수출하게 되었고 거의 1500년에서 16세기의 중엽까지 유럽인들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험

적인 재배를 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이미 15세기부터 가장 중요한 설탕생산 국가였으며, 마데이라와 아소레스(Açores)군도에서의 사탕수수 경작의 경험과 브라질의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해 브라질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식민지 개발을 위해 사탕수수 경작을 추진했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선택은 당시 설탕 소비지였던 유럽 시장이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사탕수수 재배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을 축적하지 못했다. 유럽 설탕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브라질에 대한 투자와 설탕 수송을 담당하여 많은 소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브라질의 사탕수수 경작은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1530년 마르汀 아퐁수(Martin Afonso)가 건설했던 상 비센체(São Vicente)를 중심으로 한 성장과, 둘째, 1535년 두아르체 콜엘류(Duarte Coelho)가 건설했던 페르남부쿠(Pernambuco)를 중심으로 한 성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지역들은 브라질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사탕수수 재배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사탕수수 경작에 이용되었던 초기 노동력은 브라질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오들이었으나, 포르투갈에서 유입된 임금노동자와 예수회(Jesuitas)들의 인디오 보호가 농장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sup>1)</sup>. 농장주들은 노동력 부족을 총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유입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는 식민기간 동안 400만명에 이른다(Almanaque Abril, 2000). 1800년경에는 브라질 전체인구의 2/3가 흑인, 혼혈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브라질로 수입된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을 문화적으로 구분한다면 3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나이지리아와 황금해안 등지에서 수입된 수단족(Sudaneses)으로 이들은 요루바와 게계스 그리고 미나스와 팬티족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체로 키가 크

1)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원인 외에도 사탕수수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인디오들의 노동방식과 인디오들의 연약한 신체, 백인들이 유입된 이후 발생한 질병도 인디오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 영리하며 가장 진보된 문명을 갖고 있으며 주로 브라질 살바도르로 유입되었다. 둘째는 이슬람화된 기네아-수단족으로 풀라스와 만데스, 만당가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살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브라질 북동부의 바이아 지방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이슬람과 카톨릭이 혼합된 종교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앙골라와 콩고지방의 반투족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수출항이었던 앙골라의 루안다(Luanda) 항구를 통해 브라질의 빠르남부구와 히우 지 자네이루, 마라나옹과 상파울루 등지로 유입되었다(이광윤, 김용재, 2000).

흑인들의 유입으로 활성화된 브라질의 식민사회는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민사회에서는 이중적인 문화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브라질도 흑인들의 유입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문화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민사회는 지배문화와 선택적인 대중문화(Alternative Popular Culture)로 구분된다. 브라질에서의 지배문화는 교회, 국가와 엘리트들이 형성하는 문화로 유럽의 문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amos 2000). 반면 대안적인 대중문화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형성한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와 달리 브라질의 인디오들은 어떤 특정한 문명을 형성했거나, 문화적인 행위를 식민사회에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탕수수의 재배를 위해 유입되었던 흑인들은 아프리카적인 문화적 요소를 유지·발전시켰다.

## 2.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브라질에서 흑인 노예들은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생활에서 이용되었다. 특히, 단일경작 농업경제에서는 재산적 가치로도 인정을 받았다. 일정한 나이가 된 노예들은 농업단위의 가장 훌륭한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식민지 경제의 기초가 되었던 설탕생산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점차 증가했다. 이러

한 노동은 사탕수수의 파종과 추수기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당시 흑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사탕수수 농장은 백인 주인이 거주하는 까자 그란지(Casa Grande)와 흑인들이 거주하는 센살라(Senzala)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두 건물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었다. 이는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초기 노예들은 군대식의 막사에서 단체생활을 했으며, 흑인 남자와 여자는 나누어져 생활했다. 센살라내부에는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많은 노예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센살라의 문은 10시까지는 출입이 자유로웠으나 이후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다음날 일과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문을 열어주어 엄격히 통제된 생활을 했다. 흑인노예들의 의복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남자들은 바지와 상위만을 입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치마와 상위만을 입고 생활했다. 여성들의 옷은 대부분이 브라질에서 생산된 면화로 만든 것들이었다.

일반적으로 농장에 소속된 흑인노예들은 여자의 출생률이 남자의 출생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수적인 측면에서 남자의 수가 많았는데 이는 노예무역이 흑인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흑인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주로 따뜻한 물에 끼지 비계를 곁들인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만든 “앙구(Angu)”였다. 저녁에는 “페이자웅(Feijão)”이 제공되었으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노예들에게 자신이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도 제공되었다. 흑인 노예들이 영위하는 음식은 축제일이 되면 다소 개선되었다. 축제일에는 고기가 제공되었으며 자유로운 여가 시간과 흑인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해방을 표현할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하기도 했다. 축제일에는 전통적인 종교행사, 나무통을 북으로 만들어 아프리카의 리듬에 맞춰 “바뚜끼(Batuque)”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통의 춤을 즐겼다.

19세기 커피농장의 노예들도 노동과 생활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반

면 1831년 11월 7일 노예무역금지령이 발효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노예들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지리적으로는 북동부의 사탕수수 농장지대에서 남동부의 커피재배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851년 대서양 노예무역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1853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자유 아프리카인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sup>2)</sup>. 법령의 내용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흑인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한다면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인들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행상들이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흑인 노예들간에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Maria de Ffima, Rodeiques das Neves, 1995).

#### IV. 아프리카 문화의 통합과정

##### 1. 브라질 문화의 아프리카 흑인 문화 수용

브라질 식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활동중의 하나는 종교생활이었다. 종교생활은 식민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생활양식으로써 또한 엘리트층의 지배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종교활동에는 카톨릭 교회의 생활을 규정하는 종교재판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종교재판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엘리트층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을 잘 반영한다.

종교재판의 기록에 따르면 조아킹(Joaquim)이라는 종교활동의 지도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자료가 있다. 조아킹은 앙골라 출신의 흑인 노예로 전통적인 아프리카적인 가치와 유럽 카톨릭을 혼합한 종교단체의

2) 1853년 12월 28일 1303호 법령.

지도자였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활동은 브라질 식민사회의 대중문화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다(Ramos,2000)

식민기 후반 브라질 경제의 중심이었던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대중문화는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부족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당시의 대중문화는 지배문화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가난한 시민, 흑인노예와 도망노예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브라질 사회는 카톨릭의 종교재판과 성직 겸사관들의 정통적인 카톨릭 교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는 식민인들 뿐만 아니라 희식인들의 생활 양식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의 접합은 소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최초로 브라질에 도착한 것은 1570년대 당시 브라질의 수도였던 바이아(Bahia)주의 살바도르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sup>3)</sup>.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되는 흑인 노예들은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카톨릭의 세례를 받아 카톨릭 신자로 브라질에 도착했다(Mieko Nishida 1998, p. 329). 브라질에 도착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행사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살바도르에는 많은 교회공동체(Sodalities)가 형성되어 있었다. 1685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중심된 Nossa Senhor do Rosario 교회공동체가 승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양골라 출신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었다.

이러한 교회공동체는 인종적인 분류에 따라 형성되었는데 백인들의 교회공동체, 블라토들의 교회공동체, 흑인들의 교회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흑인들의 교회공동체는 아프리카 출신과 브라질 태생의 흑인 노예 등이 각각의 교회공동체를 형성하여 세분화되었고, 블라토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 수용하였다.

흑인들의 교회공동체가 증가하면서 1786년 살바도르의 빨로우링뉴에

3) 살바도르 항구는 브라질의 설탕과 담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 항구였다.

있던 Nossa Senhor do Rosario회가 포르투갈의 도나 마리아(Dona Maria) 여왕에게 로자리오 축제기간에 앙골라 언어로 노래하고, 춤추고, 가면을 쓰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일부 흑인 교회공동체가 백인들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예문서를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축제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흑인들의 교회공동체는 노예문서를 사기 위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흑인 교회공동체는 17세기말 구성원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도시 노예 인구의 혼혈화(Creolization) 진행과 서부 아프리카 출신들이 살바도르에 도착하여 새로운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이었다. 1722년에서 1786년에는 아프리카 출신 중에서는 서부아프리카인들이 48.3%, 앙골라인이 29.0%를 차지했다. 1798-1865년에는 서부 아프리카인들이 73.7%, 앙골라인이 20.5%를 차지했다.

## 2. 아프리카 브라질 문화 형성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과 백인 주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피해 1606년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뼈르남부꾸(Pernambuco)와 알라고아스(Alagoas)주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활하던 노예들이 도망해 만든 것이 흑인들 최초의 생활 공동체라 할 수 있다<sup>4)</sup>.

4) 대표적인 걸롱부 세르지뻬(Sergipe)주의 까펠라(Capela), 이파바이아나(Itabaiana), 지니바 빠스또라(Divina Pastora), 이파뽀랑가(Itaporanga), 호자리우(Rosário), 엥쟁뉴 브레주(Engenho Brejo), 라란제이라스(Laranjeiras), 빌라노바스(Vila Nova); 바이아(Bahia)주의 우루바(Urubu), 자꾸이뻬(Jacuípe), 자과리뻬(Jaguaripe), 마라고지뻬(Maragogipe), 무리찌바(Muritiba), 깡뿌스 지 까쇼에이라(Campos de Cachoeira), 오로부(Orobó), 뚜펭(Tupim), 안다라이(Andaraí), 시끼시끼(Xique-Xique), 부라꾸 두 파뚜(Buraco do Tatu), 까쇼에이라(Cachoeira), 노싸 생뇨라 두스 마리스(Nossa Senhora dos Mares), 까불라(Cabula); 상파울루(São Paulo)주의 자바파라(Jabaquara), 모지과수(Moji-Guaçu), 아찌바이아(Atibaia), 상뚜스

1630년대 네덜란드가 브라질 북동부를 침입하면서 도망노예들이 증가했고, 이미 노예들에게 잘 알려진 빠우마리스로 많은 노예들이 모여들었다. 빠우마리스 낄롱부(Quilombo de Palmares)는 1695년 도밍구스 조르지 벨류(Domingos Jorge Velho)가 이끄는 포르투갈의 원정대가 파견되기까지 약 70년간 유지되었다. 낄롱부라는 이름은 17세기 앙골라에 자리하고 있던 킴분두 낄롱부(Kimbundu Kilombo)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앙골라에서 낄롱부는 남성의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동시에 남성의 군사조직이었다. 따라서 낄롱부에 거주하던 흑인들은 주로 앙골라 지역에서 유입된 흑인들이며, 특히 앙골라의 잉방갈라(Imbangala)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착한 흑인들로 구성되었다. 낄롱부에 거주하던 흑인들은 이곳을 “작은 앙골라(Angola Janga)”라고 불렀다(Robert Nelson Anderson, 1995).

빠우마리스 낄롱부는 교회 1개, 대장관 4개와 회의실 1개를 중심으로 220개의 가옥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0,000명의 도망노예, 소수의 인디오와 백인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다. 정착지의 외부에 농장과 집을 소유한 낄롱부의 통치자는 모кам부(Mocambo)<sup>5)</sup>와 주술사들에 의해 엄하게 다스렸다.

낄롱부는 수공예품, 옥수수, 페이주(Feijo)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재배했으며 인접한 다른 낄롱부, 원주민 마을과 물물교환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했다. 또한 일부 백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기와 기타 생필품들을

(Santos), 깅뻬나스(Campinas), 빠라시까바(Piracicaba);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의 앙브로지우(Ambrosio), 깅뿌 그란지(Campo Grande), 방부이(Bambuí), 앤다이알(Andaial), 아뿌까이(Apucaí); 마라냐옹(Maranhão)주의 뚜리아꾸(Turiacu), 상 베네찌두 두 세우(São Benedito do Céu), 히우 뚜리아수(Rio Turiaçu), 라고아 아마렐라(Lagoa Amarela), 뽀레뚜 고스미(Preto Cosme); 아마파(Amapá)주의 이아뽀끼 깔꼬에니(Iapoque-Calcoene), 마자가옹(Mazagão); 빠라(Pará)주의 알렌까르(Alencar), 오지두스(Ódidos), 알코바싸(Alcobaça), 까메따(Cametá), 까이슈(Caxiú), 모까주바(Mocajuba), 구루뻬(Gurupi)와 아나자스(Anajás).

5) 낄롱부의 또 다른 이름

교환하기도 했다. 빠우마리스 낄롱부의 초대왕은 강가 중바(Ganga Zumba)였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조카였던 중비(Zumbi)가 승계했다.

포르투갈 식민정부는 1654-1678년까지 낄롱부를 파괴하기 위해 20차례가 넘는 원정대를 파견했었다. 이러한 포르투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 정착자들은 식민지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빠우마리스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무역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Robert Nelson Anderson, 1995). 낄롱부의 종교는 표면적으로는 카톨릭이었으나, 아프리카의 신앙과 관습을 혼합한 것이었다. 왕이 거주하는 마까꼬(Macaco)<sup>6)</sup>에는 필요시에 빠우마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으나 카톨릭적인 특성은 약화되었고,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카톨릭의 종교행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카톨릭의 교리가 무시되기도 했다. 이들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아프리카 신과 카톨릭의 성인을 결합 시킨 제설혼합주의(Syncretism)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제설혼합주의적인 특성은 종교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의복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아프리카-브라질의 혼혈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요소들을 설명해준다. 낄롱부의 특성 때문에 “백인 브라질(Brasil Branco)”내에 있는 “흑인 브라질(Brasil Negro)”로 불리워졌다. 낄롱부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노예로 유입되었다. 인종적인 다양성은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각 부족집단의 춤, 종교의식, 종교와 게임을 공유했다. 이러한 문화적 혼합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은 현대 브라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라질 식민사회 내에서 낄롱부의 독자적인 아프리카적인 문화 유지와 유럽 문화의 유입과정은 신대륙에서의 문화적 교류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

6) 포르투갈어로 원숭이를 의미한다. 원숭이를 죽이는 곳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최근 브라질 흑인들의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인종의 범주를 벗어난 브라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깔롱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깔롱부의 생활방식은 식민기간에 형성되었던 생활방식들을 체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브라질에서 흑인이 거주하는 분포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Almanaque Abril, 2000).

#### <브라질의 재생 깔롱부 분포>

주 명	깔롱부 수	주 명	깔롱부 수
아그리	-	이스비리뚜 상뚜스	15
아마조나스	1	미나스 제라이스	60
아마빠	1	히우 지 자네이루	10
빠라	36	상파울루	32
흔도니아	-	남동부지역	117(소계)
호라이마	-	빠라나	1
또깡젱스	1	히우 그란지 두 술	9
북부지역	39(소계)	산따까따리나	3
알라고아스	9	남부지역	13(소계)
바이아	239	연방직할구	-
세아라	5	고이아스	6
마라냐옹	165	마뚜 그로수	2
빠라이바	13	마뚜 그로수 두 술	6
뻬르남부꾸	15	중서부 지역	14(소계)
뻬아우이	5	브라질 전역	672
히우 그란지 노르찌	15	자료출처: Fundação Cultura palmares(1998)	
세르지뻬	23		
북동부지역	489(소계)		

## V. 아프리카 문화의 변화과정

### 1. 브라질에서의 아프리카 흑인 종교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브라질에서 가장 대중적인 종교였으며,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라 불리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러한 종교는 1930년까지는 아프리카 노예와 후손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종교, 인종적인 종교로 분류되었다.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는 각 지방마다 아프리카 기원문화 전통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바이아에서는 “깡뚱브래(Candomblé)”, 빼르남부꾸와 알라고아스에서는 “상고(Xangô)”, 마라냐옹과 빠라주에서는 “미나의 북(Tambor de Mina)”, 히우 그란지 두 술에서는 “바뚜끼(Batuque)”, 히우 지 자네이루에서는 “마꿈바(Macumba)”라고 각각 불리워지고 있다(Reginaldo Prandi, 1996).

브라질에서 흑인 종교가 조직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백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종교가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브라질의 도시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에서는 이시기에 아프리카 종교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프랑스의 앨란 까르데(Allen Kardec)<sup>7)</sup>의 정령숭배사상도 유입되었다.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었지만 카톨릭은 여전히 브라질인의 90%가 신봉하는 종교였다.

왕정말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흑인들에 대한 카톨릭의 영향력

7) Allen Kardec의 본명은 H. Leon Denizard Rivail이며, 1804년 10월 3일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난 프랑스 교육자이며 철학가. 1857년 *The Spirits' Book* 발간했음. 삶과 죽음사이의 접촉 가능성과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영속적인 삶으로부터 출발한 정신적인 진보를 믿음.

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혐오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카톨릭이 흑인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흑인들이 지나고 있는 이중적인 종교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종교 활동은 상루이스(São Luis)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는 종교의식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카톨릭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0-30년대를 전환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흑인들이 브라질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톨릭 교회와 단절을 시도했던 것이다.

1920-50년 브라질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에 대한 인식들이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도 짹트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이 산업화되면서 농촌사회와 전통사회는 근대성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브라질에서 움반다(Umbanda)가 새로운 종교로 형성되었다. 움반다는 아프리카 무당과 카톨릭 전통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종교이다. 1950년대 경 움반다(Umbanda)는 인종, 사회적 지위와 지리적인 차이를 벗어나 모두에게 개방된 종교가 되었다. 움반다는 유럽-아프리카-원주민적인 특징으로 인해 카톨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로서 인식되기도 했다. 움반다는 상파울루와 히우 지 자네이루에서 종교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후 포르투갈을 포함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교세를 확장했다.

1960년대에 남동부의 산업지역으로 많은 북동부인들이 이주하면서 깡동브레가 움반다의 사원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여 움반다의 신도들이 깡동브레로 개종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브라질의 지식인, 시인, 학생과 작가들이 바이아 지역을 방문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깡동브레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깡동브레는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전할 수 있었다. 깡동브레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흑인 노예를 통해서 유입된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브라질에 유입시킨 것이다.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예배는 아프리카의 나고(Nagó), 반뚜(Bantu), 요루바(Iorubá), 제제(Jeje)의 전통적인 종교,

인디오의 종교와 카톨릭의 종교적인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 아프리카적인 종교 예배가 금지되면서 노예들은 아프리카 신과 카톨릭의 성인을 일치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바이아 주의 살바도르에서 행해지는 깡동보례는 아프리카의 요루바 지역에서 행해지는 종교였다. 최고의 신은 “올로룸(Olorum)”이며, 하늘의 신인 “오바딸라(Obatalá)”와 땅의 신인 “오두두아(Odudua)”가 있다. 이러한 신으로부터 물의 신인 “레만자(Lemanjá)”, 공기의 신인 “오룬강(Orungá)”과 “아간주(Aganju)”가 나왔다. 이러한 신에 대한 예배는 사원(Terreiro)에서 이루어지고, “신부(pai de santo)”인 “바바로릭사((babalorixá)”나 “신모(me-de-santo)”인 “이아로릭사 (ialorixá)”가 주간한다.

일부 아프리카 종교 예배에서는 짐승을 재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입문식으로 제한된다. 공개된 예배에서는 바바로릭사나 이아로릭사가 부는 나필(Búzios)을 통해 오rixá(Orixá)신과 교감한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노예들은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이미 카톨릭으로 개종한 상태였지만 길통부와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문화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851년 까지 계속된 노예무역을 통해 유입된 아프리카인들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깡동보례는 신도들이 나싸옹(Nações)<sup>8)</sup>이라고 하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다양한 종교의식들을 만들어냈다. 아프리카 문화의 통합과정에서 보았듯이, 브라질의 아프리카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앙골라, 콩고, 가봉, 자이레와 모잠비크가 위치한 반투 문화와 나이지리아와 베넌이 속한 기네만의 문화에서 유입되었다<sup>9)</sup>. 바이아 지방의 나싸옹 께뚜(Naçõo queto)에서 요루바에서 시작된 종교의식과 오rixá(Orixá) 자연의 힘을

8) 종교제문을 의미한다. 제문의 내용은 아프리카 구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9) 반투, 요루바와 풍(Fons)의 종교는 자신의 혈통과 가족에 기초하여 조상에게 예배드리는 의식도 포함하고 있었다.

지닌 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싸옹 께뚜가 다른 나싸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싸옹의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요루바어에서 유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상실했고, 현재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앙골라 나싸옹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퀴蹦두(Quimbundu)와 끼꽁구(Quecongo)에서 유래되었다.

###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의 제설혼합주의>

오릭사(Orixá)	상징물	신도들의 금기	제설혼합주의적 특성		
			카톨릭적 요소	서아프리카적 요소(제제인)	반뚜의 오릭사
Exu(사자)	예배를 접전하는 지팡이	머리에 물건을 아는 것	사탄	Eleghbara Bara Eleguá	Bombogia Aluvia
Ogum(천쟁, 철의 신)	칼	취하는 것	성 안토니우 성 조오지	Gun Doçu	Ináci Roximucunbe
Oxóssi(사냥의 신)		풀을 먹는 것	성 조오지 성 세바스찬	Azacá	Gongobira Mutacalobo
Oxumaré(부의신)	칼과 금속으로 만든 뱀	기어다니는 것	성 바르톨로메우	Agué	Catendé
Obaluaniê, Orumu (천연두, 질병의 신)	덴데 나뭇잎으로 만든 회장	장례식에 가는 것	설 라제루 성 로커	Acóssi-Sapatá Xapaná	Cafunã Cavungo
Xangô (정의와 천등의 신)	이중 도끼인 오세(Oxé), 금속 방울인 세례(Xere)	귀신을 만나는 것, 공동묘지에 가는 것, 붉은 옷을 입는 것	성 제르니도 성 주앙	Badé Queviosô	Záni
Oiá, Iansâ (번개와 바람의 신)	칼	양고기를 먹는 것 호박을 먹는 것	산파 바바라	Sobó	Matamba Bumburucema
Oxum (물, 금 사랑과 다산의 신)	노란색의 금속부채와 칼	비늘있는 물고기를 먹는 것	Nossa Senhora das Candeias	Azintobosse Navê Navezuarina	Samba Quissambo
Iemanjá (바다의 신)	카락 흰 금속의 풍구	게를 먹는 것, 작은 줄을 죽이는 것	Nossa Senhora da Conceição	Abé	Dandalunda Quissembe
Oxalá (창조의 신)	세상의 창조를 나타내는 귀고리가 달린 은지팡이	덴데로 만든 음식, 종려나무 숲, 금용일에 흰색이 아닌 옷을 입는 것	예수	Licá	Zambi

요루바내의 또 다른 나싸옹으로는 바이아의 “이팡(Ifá)”과 “이제사(Ijexá)”, 뼈르남부꾸의 나고와 “에바(Eba)”, 히우 그란지 두 술의 “오이 오이제사(Oió-ijexá)”와 “바뚜께(Batuque)”, 마라나옹의 “미나나고(Mina-Nagó)”, 알라고아스와 뼈르남부꾸의 “삼바(Xambá)”등이 있다.

오릭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식의 조직과 사제직은 매우 복잡하다.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모시는 신들은 신도들의 몸을 통해 나타난다.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과 신도들은 신들의 영매(Cavalos dos Deuses)가 된다. 이러한 영매가 되는 과정은 길고 혐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Noviça)은 사원에서 약 21일간 은둔하게 된다. 은둔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릭사의 구체적인 증거로 “아마씨(Amassi)”라고 하는 성스러운 나뭇잎을 찧은 가루를 준비한다. 그리고 노비사는 머리카락을 짜르고 색칠하고, 제물을 바치는 과정(Orô)을 통해서 오릭사를 받아드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이러한 종교의식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들은 대부분이 수단인과 반투인에서 유래되었다. 수단인과 반투인의 전통인 다신론(Politeísmo), 신을 개인이나 단체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연의 힘을 신격화시킨 것, 영매를 통한 신의 출현, 신령을 통한 운명 해석, 조상에 대한 예배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전통 때문에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의 신도들은 흑인이나 흑인들의 후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 2. 대중음악에 나타난 아프리카 흑인 문화

음악과 소리는 어떤 형태로 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음악과 노래는 대중문화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된다. 브라질의 대중음악은 성악을 제외한 브라질에서 생산된 모든 음악을 말한다. 브라질의 대중음악은 18세기 히우(Rio)와 살바도르(Salvador)와 같은 식민지 주요 도시인들의 문화생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대중음악

은 인디오의 소리, 아프리카 흑인의 솔과 포르투갈의 서정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외 포르투갈 식민 군대에서 사용하는 팡파르, 대중적인 음류시, 유럽풍의 성악 등이 브라질에 소개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을 통해 종교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카톨릭의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이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타악기적인 강력한 리듬도 수용했고, 인디오들이 부족생활에서 전쟁, 축제와 종교와 관련된 의식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흡수되었다.

브라질에서 대중음악의 역사에 대한 분석은 헤나뚜 지 알메이다(Rebnato de Alemida)와 마리우 지 안드라지(Mário de Andrade), 오네이다 알바렌가(Oneyda Alvarenga), 까마라 까스꾸두(Câmara Cascudo)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1920-30년대 브라질성(Basilidade)의 문제, 브라질 정체성의 문제, 민속성 연구의 필요성과 현대음악과의 연결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브라질의 정체성과 음악적 정체성에 관심을 보였던 마리우 지 안드라지는 18세기 말 이후를 브라질 대중 음악이 시작한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룬두(Lundu)”와 “모딩냐(Modinha)”에서 브라질 대중 음악의 어떤 특정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은 19세기에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자리하게 된다.

또한 19세기에는 왕의 날 축제에서 행해지는 헤이자두스(Reisados), 크리스마스에 행해지는 세간사스(Cheganças)와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콩고스(Congos) 등의 드라마틱한 춤을 중심으로 음악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18세기의 대중음악 형성과 19세의 다양한 춤의 형성을 거쳐, 1900-1910년대는 브라질의 대중음악이 더욱 완숙해졌으며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창작물들이 발표되었다(Marco Napolitano, Maria Clara Wasserman, 2000).

포르투갈, 인디오와 아프리카 흑인의 음악적인 요소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룬두(Lundu)와 모딩냐(Modinha)라는 음악을 탄

생시켰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동시에 출현한 모딩냐는 가볍고 단순한 유럽의 아리아에서 비롯되었다. 부드러운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아프리카 리듬에 유럽의 멜로디와 하모니가 혼합된 룬두는 흑인과 물라토들의 감각적인 춤에서 기원하여 18세기 말에 브라질의 대중음악으로 정착했다. 따라서 음악적으로 감성적인 박자와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 룬두는 1798년 포르투갈에서 도밍구스 깔다스 바르보자(Domingos Caldas Barbosa)가 “Viola de Lereno”라는 최초의 작곡집을 편찬했다<sup>10)</sup>.

이러한 두가지 형태는 도회적인 환경과 결부되어 있었으며, 중류층의 가정에서 세례나데로 이용되었다. 모딩네이루스로 알려진 음악가들의 대부분은 시인이었다. 이들 중에 가장 잘 알려졌던 음악가는 도밍구스 깔다스 바르보자(Domingos Caldas Barbosa), 시스뚜 바이아(Xisto Baiha)와 까스뜨루 알비스(Castro Alves)가 있다.

1850년대 이후 히우(Rio de Janeiro)에서 중류층의 새로운 대중적인 작곡가 세대가 출현했다. 그들은 유럽의 살라옹 춤곡(풀카, 마주르카와 발사)에 영향을 받아 헤비스따 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동시에 브라질에서 가장 대중적인 악기였던 비올라옹과 까바 кач뉴(Cavaquinho)를 기본으로 하는 쇼루(Choro)라는 소규모 악단이 조직되었다.

1899년에 시킹냐 공자가(Chiquinha Gonzaga)가 “Abre Alas”를 작곡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카니발적인 음악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77개의 악극과 2천곡 이상을 작곡하여 브라질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작곡가로는 에르네스뚜 나자레스(Ernasto Nazareth)와 빠따뻬우 실바(Patápio Silva)가 있다.

현재 브라질을 대표하는 음악이자 춤인 삼바는 1842년 11월 12일에 지송 까르네이루(dison Carneiro)가 “Carapuceiro”라는 빼르남부꾸 잡지

10) 룬두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바이아 출신의 Xisto Bahia (1841-1894), Laurindo Rabelo (1826-1864) 등이 있다.

에 삼바곡을 발표한 것이 최초였다. 삼바(Samba)라는 말은 포르투갈의 미겔 두 사그라멘투 로페스 가마(Miguel do Sacramento Lopes Gama) 신부가 1832년-1846년 헤시피에서 발행된 *Carapuceiro*지에 연재되는 풍자적인 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sup>11)</sup>. 따라서 이 당시 삼바라는 의미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통해 유입된 여러 가지 춤과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763년부터 브라질의 수도였던 히우(Rio de Janeiro)는 아프리카에서 직접 들어온 흑인들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자유 흑인과 노예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브라질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대중문화에는 포르투갈의 모딩냐, 브라질화된 모딩냐, 쇼루(Choro)와 마시시(Maxixe) 등이 있었다.

축제문화에서는 포르투갈이 사육제를 브라질에 소개했는데, 사육제는 식민정부와 왕정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사육제에서는 북을 치는 사람인 제뻬레이라(Zé-Pereira)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뻬레이라는 광대를 비롯한 사육제에 참가하여 즐기고 있는 사람들(Carnavalescos)과도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1920-30년대 당시 마시시(Maxixe)에 음악적으로 깊숙이 관련되어 있던 삼바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고, 모든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라디오 보급이 확대되어 최초의 대중적인 우상(Idolos Populares)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많은 작곡자와 편곡자들이 출현했다<sup>12)</sup>.

2차 세계대전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11) 로페스 신부는 “samba d’almocreve”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말과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란 의미였다.

12) 삼바의 왕(Rei do Samba)이라 불리우는 싱뇨(Sinhô, 1888-1930), 삼바를 완성한 이스마에우 시우바(Ismael Silva), “Aquarela do Brasil”的 작곡자인 아리 바호 주(Ary Barroso), O Teu Cabelo No Nega와 같은 카나발적인 행진곡을 작곡한 라마르찌니 바부(Lamertene Babo) 등이 시대의 대중음악가들이다.

들었고, 대중음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해에 루이스 공자가(Luiz Gonzaga)와 웅베르뚜 페이세이라(Humberto Teixeira)가 북동부 지방의 시골풍의 음악인 바이아옹(Baião)을 발표했다.

이시기에 바이아옹이 확고한 자리를 굳혔고, 당시의 시대상황을 가장 잘 표현방식으로 삼바-깡싸옹(Samba-Canção)이 새롭게 출현했다. 삼바-깡싸옹에서 시작된 복잡한 하모니와 부드러운 리듬이 조화를 이루며 보사노바(Bossa nova)가 출현하였다. 보사노바는 엘리제스 까르도주(Eliseth Cardoso)의 깊은 사랑의 노래(Canção do Amor Demais)로 시작되었다.

### 3. 아프리카 전통의 까뽀에이라(Capoeira)

까뽀에이라는 브라질 문화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된 문화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브라질의 민속을 표현하는 놀이문화와 호신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까뽀에이라는 다양한 언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포르투갈어와 뚜뻬파라니(Tupy-Guarany)로 구분된다. 포르투갈어에서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고<sup>13)</sup>, 뚜뻬어에서는 세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sup>14)</sup>. 어원에 따른 분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브라질 문화에서는 까뽀에이라(Capoeira)라는 고유명사로 인식되고 있다.(Paulo Coêlho de Araú, 1997).

브라질에서 까뽀에이라의 발전은 1단계 왕정기(Reinado), 2단계 공화정 시기(República), 3단계 민족주의 혁명 이후의 시기(Pós-Revolução Nacionalista-Getúlio Vargas)로 구분할 수 있다(Luiz A. N Lima, p. 11-16).

13) 닭장, 망루, 굴, 이륜마차, 새장

14) 뚜뻬어에서 caa 숲을 의미하고, pueira는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둘의 합성어로 capoeira가 되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까뽀에이라가 시작된 것은 식민시대 앙골라에서 유입된 노예들이 사탕수수 농장과 커피농장에서 즐기는 놀이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까뽀에이라는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이아 지방에서 베림바우(Berimbau)<sup>15)</sup>의 소리에 맞추어 방어와 공격이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초기의 까뽀에이라는 브라질의 바이아, 히우 지 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 헤시피(Recife), 미나스 제라이스(Minas Gerais)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놀이문화였다.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 까뽀에이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금광이 발견되면서 바이아, 히우 지 자네이루, 뼈르남부꾸와 기타 다른 주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나스 제라이스주에서는 흑인들의 회합과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까뽀에이라는 호신술로서 많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831년 헤시피 시의회가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금지시켰고, 1844년에는 살바도르 시의회가 공개된 장소에서 노예들의 회합, 춤과 부따끼(Butaque)를 금지시켰다. 이후 왕정말기에는 죄인들의 무술(Arte de Criminosos)로 인식되었고 1890년에는 형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1920년까지 까뽀에이라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뽀에이라는 민속춤으로 속여 빠라(Para)주, 상파울루(São Paulo)주와 히우(Rio de Janeiro)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까뽀에이라는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중문화로 발전했다.

1937년 빔바(Bimba)라는 사범이 바르가스(Vargas)대통령에게 초대되어 까뽀에이라를 선보이게 되었다. 빔바는 성공적인 공연이후 브라질 정부가 승인한 최초의 까뽀에이라 수련원을 세웠으며 마노에우 두스 헤이스 마사두(Manoel Dos Reis Machado, 1899-1974)가 처음으로 까뽀에이

15) 활처럼 생긴 혀악기에 작은 복을 달아 만든 타악기

라의 교본을 만들어 까뽀에이라를 놀이문화에서 무술로 발전시켰다. 그는 바이아 지방의 놀이문화와 종교의식에서 행해지던 까뽀에이라를 52개 동작으로 표준화시켰다.

1990년 교수법을 통일하고 스포츠로 승격시키기 위해 브라질 까뽀에이라 사범 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Professores de Capoeira, ABPC)가 결성되었다. 1995년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Comitê Olímpico Brasileiro)가 1992년 설립된 브라질 까뽀에이라 연맹(Confederação Brasileiro de Capoeira)을 승인하여 호신술의 단계에서 하나의 스포츠로 발전했다. 까뽀에이라 연맹이 결성되기 이전에는 브라질 권투 연맹(Confederação Brasileiro de Pugilismo)에 소속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했다.

까뽀에이라의 경기 규칙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까뽀에이라 선수(Capoeirista)들이 둘러싼 원형내에서 배럼바우와 박수리듬에 맞춰 2명이 기를 겨룬다. 손, 발과 기타 신체부위로 상대방을 과격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까뽀에이라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 연주되는 배럼바우의 리듬이 까뽀에이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원형으로 둘러선 까뽀에이라 선수들 중 1/3은 겨루기 중인 선수와 교체가 가능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까뽀에이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개발은 비교적 최근에 일이다. 초기의 까뽀에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배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까뽀에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신체단련, 놀이 문화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브라질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한 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 6. 결론

브라질의 역사는 문화교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연구는 브라질의 정체성을 “열대문

화”, “복합문화”와 “잡종성”등으로 정의한다. 혼혈은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종적 결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문화적 요소가 혼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실체로 나타난다. 인종적 측면에 있어서 유럽계 인종이 브라질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듯이 문화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의 문화적 전통이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 및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의 문화는 주로 기층문화로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고된 노동과 백인 주인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피해 1606년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뼈르남부꾸(Pernambuco)와 알라고아스(Alagoas)주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생활하던 노예들이 도망해 만든 것이 흑인들 최초의 생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최근 브라질 흑인들의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인종의 범주를 벗어난 브라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길통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길통부의 생활방식은 식민기간에 형성되었던 생활방식들을 체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브라질에서 흑인이 거주하는 분포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이미 카톨릭으로 개종한 상태였지만 길통부와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문화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851년까지 계속된 노예무역을 통해 유입된 아프리카인들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들은 대부분이 수단인과 반투인에서 유래되었다. 수단인과 반투인의 전통인 다신론(Politeísmo), 신을 개인이나 단체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연의 힘을 신격화시킨 것, 영매를 통한 신의 출현, 신령을 통한 운명 해석, 조상에 대한 예배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전통 때문에 아프리카 브라질 종교의 신도들은 흑인이나 흑인들의 후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종교의 경우 식민 초기부터 유럽의 종교인 카톨릭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국교가 되었지만 여기에도 원주민이나 흑인의 종교적 전통이 혼합되어 있다. 그밖에도 언어, 인간관계, 의식주, 건축물, 축제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주민과 아프리카 흑인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깡동브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통해서 유입되었지만, 카톨릭 교리의 일부를 수용하고 인디오들의 신앙까지 수용하면서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흑인, 물라토와 일부 백인들이 공유하는 문화로 발전했다.

브라질의 대중음악은 성악을 제외한 브라질에서 생산된 모든 음악을 말한다. 브라질의 대중음악은 18세기 히우(Rio)와 살바도르(Salvador)와 같은 식민지 주요 도시인들의 문화생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대중음악은 인디오의 소리, 아프리카 흑인의 솔과 포르투갈의 서정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의 포르투갈 식민 군대에서 사용하는 광파르, 대중적인 음류시, 유럽풍의 성악 등이 브라질에 소개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을 통해 종교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카톨릭의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이 종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타악기적인 강력한 리듬도 수용했고, 인디오들이 부족생활에서 전쟁, 축제와 종교와 관련된 의식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흡수되었다. 포르투갈, 인디오와 아프리카 흑인의 음악적인 요소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룬두(Lundu)와 모딩나(Modinha)라는 음악을 탄생시켰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동시에 출현한 모딩나는 가볍고 단순한 유럽의 아리아에서 비롯되었다. 부드러운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아프리카 리듬에 유럽의 멜로디와 하모니가 혼합된 룬두는 흑인과 물라토들의 감각적인 춤에서 기원하여 18세기 말에 브라질의 대중음악으로 정착했다. 따라서 음악적으로 감성적인 박자와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

브라질에는 많은 대중음악이 존재한다. 특히, 브라질인들이 공유하는 대중음악은 삼바 음악에서 비롯된 종류들이 많이 있다. 삼바는 다양한 리듬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음악이자 춤인 룬두에서 비롯되었다. 삼바외에 아마존일대에서 일반 대중들이 즐기는 보이붐바

(Boi Bumba)도 북동부인들이 고무산업 초기에 이동하면서 시작되었다.

브라질에서 까뽀에이라가 시작된 것은 식민시대 양골라에서 유입된 노예들이 사탕수수 농장과 커피농장에서 즐기는 놀이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까뽀에이라는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이아 지방에서 베림바우(Berimbau)의 소리에 맞추어 방어와 공격이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1831년 헤시피 시의회가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금지시켰고, 1844년에는 살바도르 시의회가 어떤 장소에서 던지 노예들의 회합, 춤과 부따끼(Butaque)를 금지시켰다. 이후 왕정 말기에는 죄인들의 무술(Arte de Criminosos)로 인식되었고 1890년에는 형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1920년까지 까뽀에이라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뽀에이라는 민속춤으로 속여 빠라(Para)주, 상파울루(São Paulo)주와 히우(Rio de Janeiro)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참고문헌

- 김상용(1988), “大西洋 奴隸貿易이 西아프리카에 미친 影響”, 부산, 부산 교대논문집.
- 박원복(1998), “브라질 현대작가들이 추구한 자국 문화의 정체성 탐구 방향과 논리”, 이베로아메리카 논총, 부산외대.
- 이광윤 박원복 공저(1998),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 이광윤 김용재(2000), 포르투갈·브라질의 역사와 문화,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전경수(1994),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일지사.
- 최금좌(1999) 질베르투 프레이리: 인종 민주주의에서 열대학까지, 이성형 편,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서울, 까치.

- Almanaque Abril(2000), Brasil, São Paulo, Abril
- Anderson, Robert Nelson (1995), The Slave King, Brazzil, October 1995.
- Dantas, Beatriz Gis (1988), Vovó Nagô e Papai Branco : Usos e Abusos da África no Brasil, Edições Graal, Rio de Janeiro
- David J. Hess & Roberto A. Matta(1995), "The Brazilian Puzzle",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 de Araú, Paulo Coêlho (1997), Abordagens Sócio-Antropológicas da Luta/Jogo da Capoeira, Istituto Superior da Maia, Maia.
- de Moraes, José Geraldo Vinci (2000), História e Música: Canção Popular e Conhecimento Histórico, Revista Brasileira de História, São Paulo, V.20, N° 39
- Ianni, Octavio(1996), A Idéia de Brasil Moderno, São Paulo, Editora Brasiliense.
- Lima, Luiz A. N de Moraes(1990), A Capoeira, um discurso em extinção. São Paulo, PUC/FAPESP
- Marco Napolitano, Maria Clara Wasserman(2000), Desde que Samba é Samba: a Questão das Origens no Debate Historiográfico sobre a Música Popular Brasileira, Revista Brasileira de História, São Paulo, V.20, N° 39.
- Fausto, Boris, História do Brasil, São Paulo, ed USP
- Karry, Hendrik(1998), Afro-Brazilian Culture and Politics: Bahia, 1790s to 1990s, M.E. Shape.
- Maria de Fátima, Rodeiques das Neves(1995), "Escravidão no Brasil", Contexto, São Paulo.
- Moreira, Manuel Correia (1989), O Brasil e África, Contexto, São Paulo
- Mota, Carlos Gilherme(1978),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 Editora

Ática, São Paulo.

Nishida, Mieko, From Ethnicity to Race and Gender: Transformations of Black Lay Sodalities in Salvador, Brazil, Jornal of Social History, Winter 1998, Vol. 32, Issue 2,

Prandi, Reginaldo, Herdeiras do Axé,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1996.

Ramos, Donald (2000), Gossip, Sacandal and Popular Culture in Goldern Age Brazil,, Journal of Social History, Summer 2000, Vol.33, Issue 4.

Schwarz, Roberto (1992), “Essays on Brazilian Culture Misplaced Ideas”, New York, Verso.

Skidmor, Thomas E. (1994), “O Brasil Visto de Fora”, Rio de Janeiro, Paz e Terra.

\_\_\_\_\_ (1999), “Brazil: Five Centries of Change”, Oxford, Oxford Univ Press.

Stam, Rober (1997), “Tropical Multiculturalism: A Comparavie History of Race in Brazilian Cinema & Culture”, London, Duke Univ Press.

Vianna, Hermano(1999), “The Mystery of Samba: Popula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in Brazil”,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